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 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에서의 한류 열풍은 남북한의 체제 대결 속에서 비공식 루트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일반 문화 시장에서의 한류 열풍 과정과는 차이가 난다. 한류(Korean Wave)란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타국 대중들의 인기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류의 시작은 19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 TV 드라마·가요 등이 중국·일본·대만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시작됐다. 최근에는 한국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K-Pop 열풍이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면서 제2의 한류가 형성되고 있다. 한류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인지도를 높였고 국가 브랜드를 강화시켰다. K-Pop의 간접적 파급 효과인 미용·성형·화장품 사업이 관광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한류의 확산은 대한민국

북한에서의 한류 열풍

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진 친한파 외국인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여했다.

북한에서의 한류란 북한 지역에서 수용되고 있는 남한의 대중문화를 지칭한다. 북한이 대중의 자발적 문화 향유가 어려운 폐쇄적 통제국가라는 점에서 한류는 양적인 확산 정도를 떠나 존재만으로도 주목된다. 북한에서의 한류는 북중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조용히 시작되었으나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급기시되는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도 향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적 열풍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초기엔 대중가요와 드라마 등 남한 대중문화의 수용으로 시작해서 현 단계에는 미용이나 탈투 등 일상생활 문화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북한에서 한류의 유행 구조는 장마당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된다. 녹화기 등은 장마당에서 공식적으로 판매·구입이 가능하다. 북한 CD는 진열대에서 팔리지만 남한 대중문화 CD는 뒤에서 몰래 판매된다. 남한 영상물들은 혼자 보기도 하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보기도 한다. 서로 돌려보므로써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확산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통제와 단속을

피해 가며 남한 영상물을 향유한다. 정치적 동기가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유입됨으로써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확산되는 모습이다. 한류는 대도시의 고위층이나 부유층 자녀들 중심대 후반에서 이십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주류를 이룬다. 뮤직비디오로 남한의 아이돌 그룹이 부른 랩·힙합·록 등을 들으면서 옷차림이나 몸짓을 흉내 내기도 한다. 당국은 비사회주의 문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CDR·DVD 등 일명 ‘알판’의 단속강화 방침을 지속적으로 내린다. 시·도에 중앙당 검열단을 파견하여 집중 검열하는 작업을 벌이기도 한다. 단속반과 젊은이들 간의 숨바꼭질은 여기저기서 목격된다.

상업적 목적으로 유입된 남한 영상물은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된다. 남한 문화와 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의 남한 영상물 수용은 정치적 행위가 아닌 문화수용 욕구에 기반한다. 단기적으로 북한 체제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지만 되돌릴 수 없는 문화적 흐름을 형성한다면 장기적으로 북한 사회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일 것이다.

민족적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북한의 한류 현상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전력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북한의 한류 현상을 성공하게 북한 사회의 ‘아래로부터의 붕괴’ 조짐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급물살이다. 남한과 북한을 이어 주는 한류 연결망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의식 수준을 높이면서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서독의 TV 광고나 오락·가요·퀴즈 프로그램·드라마 등 방송매체가 동독 주민의 자본주의적 정치사회화에 영향을 미쳤다. 동독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독일 통일 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북한의 한류는 남북한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킨다. 장마당의 활성화와 정보 유입으로 개인주의·물질주의 등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이 발달되고 이는 남한 사회에 대한 적대감 완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서독은 동독을 도와 주민들을 내국인으로 편입시켰다. 우리 보수 우파들의 대북 파주기 주장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북한에서의 한류 열풍에 맞춰 북한 주민들의 자존심을 지켜 주면서 마음을 얻는 것이 평화통일의 출발이면서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종교칼럼



변 찬 석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정사목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가톨릭교회의 십계명중 8계명이다. 본래 이 계명은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금하는 것이다. 사실 구약성서는 일상에서 불가피하게 행하는 거짓말을 단죄하지 않으며 때로는 ‘삶의 지혜’로까지 여겼다. 그러므로 이 8계명은 개인적인 영역의 거짓말이 아니라 법정의 거짓 증언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재판 장소는 주로 성문이었으며 재판은 당시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일상적인 일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이 재판 절차에서 증인의 비중이 컸다. 그래서 재판에서의 증인은 피고에게 무죄와 유죄를 선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 실제로 재판에서의 거짓 증언은 원수나 적대자에게 앙갚음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증언으로부터 구형될 명예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하느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고, 그것이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8계명이었다.

그러므로 가톨릭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8계명은 명예를 보호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 거짓말로 남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위증처럼 재판이나 기타 공적인 자리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행위, 모함처럼 없는 비행(非行)을 있다고 하거나 불확실한 것을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하든지 또는 과장해서 말하는 행위, 이간질처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좋지 않게 말하는 것을 그에게 말하여 둘 사이를 불목하게 만드는 행위, 모욕처럼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나 행위 등을 금지하는 계명인 것이다.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워 왔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1회에서 200회의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 물론 조사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매일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거짓말이란 항상 나쁜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인간이 거

진 자연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그리고 거대한 사회 조직을 형성하기 위한 필요 때문에 선택된 적응의 하나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다. 물론 거짓말이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 경우, 거짓말은 나쁜 것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거짓말을 모두 나쁘다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다고 모든 거짓말들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개인적인 거짓말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어린 시절 기억으로 머릿속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다. 1986년에 TV에서는 북한에서 금강산담을 만들어서 담을 무너뜨리면 서울이 물에 잠긴다는 뉴스였다. 그래서 초등학교생부터 온 국민이 ‘평화의 댄 섬금강’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냈지만, 결국 정권 안보를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IMF 외환위기 바로 직전인 1997년에는 경제부처의 수장이 직접 나와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은 튼튼하다’는 호언이 있었다. 2008년에 당선된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약 22조 원의 예산으로 강을 파고 보(壩)를 쌓았다. 그 결과는 물고기들의 폐죽음과 녹조로 우리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선 기간 중에 후보를 조작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그러나 국민을 속인 국

가나 소위 책임 있는 사람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줘야 하는 국가 책임자들이 여전히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특히 각자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신뢰도 조사에서 항상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우리는 누구나 거짓말에 익숙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거짓말을 쉽게 있어 버리고, 책임을 묻지 않으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거짓말과 사기(詐欺)는 구분을 해야 한다. 거짓말은 상황에 따라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공동체를 유지하게 할 수도 있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못된 꾀로 다른 이들을 속이는 사기(詐欺)는 공동체에 상처만 남기고 분열을 야기한다.

특히 청문회나 국회에서 하는 거짓말은 국민에게 상처와 실망만 주고 분열을 야기한다.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거짓말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사기’(詐欺)다. 그들의 거짓말은 그들과 그들을 믿고 대표로 뽑아 준 국민과의 분열을 야기한다. 그들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고 대표로 살아야 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더불어 살아갔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 고



임 영 진
전남대 문화인류고고학과 교수

지난 6월 1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가야사 연구와 복원에 대한 발언은 가야권에 대한 관심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김해, 고령, 함안, 창녕 등 관련 시군에서는 벌써 박르게 개발 방안들을 내놓고 있고, 학계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가야사 관련 발언은 가야권에 대한 해답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 발언의 근본적인 취지 때문이다. 삼국시대 고구려·백제·신라에 비해 연구가 덜 이루어졌던 가야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일 것이므로 마한사를 비롯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러 지역사에도 해당될 것이다.

우리나라 고대사회는 고구려·백제·신라로 구성된 삼국시대로 표방되어 왔다. 이는 고려 인종 23년(1145)에 간행되었던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기인하는 바이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삼국시대는 100년 남

마한사 복원해야

짓한 기간에 불과할 뿐이다. 562년까지 연연히 가야가 있었고, 530년경까지는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마지막 마한도 존속하였다. 그 이전에는 옥저나 동예도 있었다. 이 때문에 6세기 중엽까지는 ‘열국시대’ 혹은 ‘다국시대’로 불려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가야사에 대해서는 광활한 만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고대 사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고구려·백제·신라 외에 가야도 엄청난 고대 국가였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활발한 고고학 조사, 연구와 문헌사 분야의 새로운 연구 성과 때문이다. 종래 일본이 한국 집탈의 역사적 명분으로 삼았던 ‘임나일본부’에 대해 기존의 식민지 설을 철회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가야사의 연구 진전에 따른 것이다.

가야사 연구의 진전에 비한다면 마한사 연구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마한은 진한·변한과 함께 삼국시대 이전에 삼한을 이루고 있었지만 진한이나 변한에 비해 연구자의 관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진한이 신라로 발전하고, 변한이 가야로 발전하였던 데 반해 마한은 백제로 발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신라의 기원으로 진한이 연구되고, 가야의 기원으로 변한이 연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백제의 기원은 고구려에서 찾아야 하였다. 백제는 마한에서 발전

한 것이 아니라 온조로 대표되는 고구려계 이주민에 의해 건국된 후 마한을 병합해 나갔기 때문이며, 백제사에서는 마한사가 소멸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마한은 경기·충청·전라 지역에 걸쳐 있었지만 4세기까지 대부분의 지역이 백제로 편입되었고 마지막 마한에 해당하는 전남 지역은 더 늦은 시기까지 발전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남도에서는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나주 반남고분군을 비롯한 고대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지역사를 규명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역사적 동력으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국토개발 정책이 신라문화권, 백제문화권, 가야문화권 등 고대문화권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을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권’으로 바꿔 역사적 정체성을 보다 선명하게 표명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조사·연구로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전남 지역이 530년경까지 독자적인 문화를 이루면서 발전하였고 그 역사적 실체는 마한에 해당한다는 것이 밝혀져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가야권에서는 전기 가야연맹의 김해와 후기 가야연맹의 고령을 중심으로 가야 유적의 조사·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여 왔다. 특히 김해에서는 23년째 가야사 학술회의

를 계속하고 있고, 고령을 비롯한 여러 가야 소국의 중심지에서도 뒤집새라 지역사 규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이루어진 이 같은 노력은 결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가야사 복원의 필요성을 거론하게 하였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문제만큼 마한사 문제를 잘 알고 있었다면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로 가야사 복원만 당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경상남도도 중심으로 가야사 연구와 복원 사업이 활발해지는 것에 발맞추어 전남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마한사 연구와 복원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6세기 초까지 마지막 마한 제국과 가야 제국이 긴밀하게 교류하였던 고고학 자료들이 두 지역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두 지역이 연계하여 구체적인 교류 내용과 그 배경을 밝혀 나가야 할 것이다.

가야 제국이 통합된 고대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신라에 병합된 것과 마찬가지로 마한 제국 역시 통합되지 못한 채 백제에 병합되어 나간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마한 제국과 가야 제국은 오히려 이상적인 자치·분권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만큼 지방자치와 분권이 강화되어 나가고 있는 지금의 추세 속에서 가야사와 함께 마한사를 연구하고 복원하는 것은 더욱 뜻깊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社 說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인증 통과하려면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현장실사가 진행되고 있다. 안드레아스 쉐러(독일)·사리나(중국) 등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심사단은 최종 평가를 위해 무등산을 중심으로 광주·화순·담양의 지질 및 문화명소를 둘러보고 있다.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전남도는 심사단의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데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 밖에 최종 인증 여부가 평가를 나는 내년 4월까지 무등산권을 효율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에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 단계는 광주·담양·화순 일부 지역에 걸쳐 총 1051.36㎢에 이르는 지질공원 대상은 크게 지질명소와 역사문화명소로 나뉜다. 지질명소로는 무등산 서석대·입석대·광석대를 비롯해 서무지기폭포·화순 공룡화석지·고인돌 유적지·적벽 등 20곳이며 역사문화명소는 아시아문화전당·축죽원·신창동

선사유적지·소쇄원 등 42곳이다. 이중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생성 시기가 중생대인 데다 규모가 세계 최대이며, 산 정상 부위에 있는 것으로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질학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지질공원 심사단은 주상절리대의 규모와 아름다움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지질공원은 인류의 유산이라는 지질학적 가치는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도는 반드시 인증이 통과되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유네스코가 인증한 세계지질공원들은 대부분 관광이 활성화돼 지역민 고용 효과가 70% 이상 높았고, 청정 이미지가 부각돼 농수산물의 판매도 급증했다고 한다.

세계지질공원 인증 결정까지 이제 9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시·도는 무등산권 선사시대 유적지·주상절리대를 비롯해 여러 문화유적지가 지질공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금호타이어 매각과 지역 근로자 생존권

금호타이어 매각 추진 과정에서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경영평가 등급을 낮게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금호타이어 임원들이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로 매각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매각 시 전원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금호타이어 전 임원은 어제 결의문을 통해 “부적격 업체인 더블스타로의 매각을 강행함으로써 채권단은 이익을 쟁탈지 몰라도 우리 직원들은 고용이 불안정해질 뿐만 아니라 더블스타가 기술과 자금만을 쟁긴다”고 주장했다.

금호타이어 직원들도 별도의 결의문을 통해 채권단에 매각 중단을 요구했다. 금호타이어 연구원 및 본사 일반직 사원 750여 명은 이날 “지역 정서에 반하는 매각을 중단하고 금호타이어 스스로 경쟁력을 회복할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대한 경영평가 등급을 ‘D’로 부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은행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타이어의 ‘금호’ 상표권 사용료를 두고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 금호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자 경영평가 등급을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금호타이어 임원진은 “최근 불거진 면세점 허가 심사와 관련, 정부 기관이 평가 점수를 왜곡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 1월 더블스타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고 3월에 주식매매 계약(SPA)을 체결했으나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상표권 사용 협상 등으로 매각 작업을 마무리하는 데 진통을 겪고 있다. 양쪽의 입장과 계산이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 지역 근로자 생존권 보장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無 等 鼓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되면 흔히들 ‘독이 든 성배’를 들었다는 표현을 쓴다. 누구나 꿈꾸는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엄청난 책임감에 시달리고, 성적이 좋으면 영웅이 되지만 조금만 나빠도 호된 비난과 질책을 피할 수 없어서다.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직은 독이 든 성배”라는 표현은 2006독일월드컵 조직위가 본프레레 감독의 퇴진을 알리면서 처음 등장했다. 당시 본프레레 감독은 본선 진출을 이루고도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경질

하지만 그의 능력은 선수보다 지도자일 때 더 빛났다. 성남 감독을 맡은 첫해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국가대표팀 코치를 거쳐 U-23, U-20 감독으로 승승장구했다.

월드컵 최종 예선전은 이제 딱 두 경기 가 남았다. 다음 달 31일 이란과 홈경기, 그리고 9월 5일 우즈베키스탄 원정이다. ‘독이 든 성배’를 들고 위기의 한국 축구 구원에 나선 신태용 감독. 그가 선수 시절 이루지 못한 월드컵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면 신(神)의 선택이 신(神)의 한 수가 되기를 바랄 뿐.

/유재만 편집1부 부국장 jkyou@

독이 든 성배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0-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부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안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